



# 소방활동 일일상황

- 2019. 11. 13.(수) 06:00 -



## 기상상황

구분	기상개황	기상 전망 등	
오늘 (수)	영서 2°C/11°C	<b>❖ 기상특보 : 11.11. 21:00 발표)</b> <b>○ 건조주의보 : 제주도(산지)</b> <b>○ 강풍 예비특보(11.13. 밤)</b> - 울릉도, 독도, 강원(남·중·북부산지, 정선·삼척·동해·강릉·양양·고성·속초평지, 태백) <b>○ 풍랑 예비특보(11.13. 밤)</b> - 동해중부먼바다, 동해중부앞바다 등	
	영동 10°C/18°C		
내일 (목)	영서 -5°C/05°C		
	영동 1°C/09°C		

## 주요 소방활동

### ○ (화재) 태백시 황지동 「공장」

▶ 11. 12.(화) 08:43, 전기적 아크(단락) 추정, 유압호스 제작 공장, 3㎡ 및 집기류 소실

### ○ (구급) 인제군 남면 어론리 「폭발」

▶ 11. 12.(화) 15:19, 군부대 정비소 내 작업 중 폭발 추정, 중상 4명, 병원이송

## 【 야 간 】

### ○ (화재) 원주시 지정면 보통리 「창고」

▶ 11. 12.(화) 18:00, 조사 중, 중고 가전제품 보관창고, 샌드위치패널 195.39㎡ 소실

### ○ (구급) 원주시 단계동 「교통사고」

▶ 11. 12.(화) 21:51, 승합차량·오토바이 추돌, 심정지(남/20세), 응급처치 및 병원이송

## 소방활동 통계

○ 화 재 : 4건, 인명피해 없음, 재산피해 7,801만 원

○ 구 조 : 44건 5명 구조

❖ 인명구조 : 산악(2건/1명), 교통(4건/1명), 갇힘(11건/3명), 수난(-건/-명), 기타(8건/-명)

❖ 생활안전 : 9건(동물구조 7, 벌집제거 2)

❖ 돼지열병 방역 급수지원 : 10건 54톤(철원) / 누계 443건 1,986톤

○ 구 급 : 230건(질병, 교통사고 등) 251명 응급처치·이송

○ 의료정보제공 : 76건(의료지도 1, 병의원안내 27, 약국안내 3, 기타 45)

○ 119신고접수 : 1,045건

○ 타 기관 이첩 : 17건<권역위 1, 타시도 16, 경찰, 해경> 누계 23,724건<통합이후>

## 화재안전특별조사 추진사항

구분	실시대상 (동)	불량사항							
		개선 유도		중대 위반		중대 위반 조치내역 (대상) *병과 가능			
		대상	건수	대상	건수	조치명령	입건	기관통보	과태료
일일	85	58	186						
누계	22,654	15,608	53,766	831	1,047	7		815	16

## 언론보도 주요사항 등 / 세부내용 은나라 메모 및 119특 참조

### ○ 영동지역 가스사고 대응 업무협약 체결(세이프투데이)

#### ▶ 가스공급, 유지관리, 사고대응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영동지역 가스사고 예방 및 대응을 위해 강원소방본부 환동해특수재난 대응단과 한국가스공사강원지역본부 강릉지사, 한국가스안전공사 강원 영동지사가 손을 맞잡았다.

3개 기관은 11월12일 오전 11시 환동해 특수재난 대응단 회의실에서 영동지역 가스사고 예방과 효율적 대응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가스는 소방법상 위험물에 포함되지 않고 가스 관련 법규에 의해 설치, 관리돼 관리주체와 대응부서의 유기적인 협력이 필요했다.

3개 기관 실무자들은 사전회의를 통해 영동지역 가스분야 재난에 대한 대응방안을 조율해 업무협약서를 작성했다.

체결식에는 남중훈 특수재난대응단장과 전인주 강원영동지사장, 신명욱 강릉지사장이 참석해 업무협약서를 확인 후 서명했다.

업무협약 결과 앞으로 3개 기관은 영동지역 가스사고 예방을 위해 예방 및 안전 활동을 전개하고 재난발생시 피해수습과 복구지원에 협력키로 했다. 협약을 통해 국민생활 전반에 사용되는 에너지인 LNG, LPG, 고압가스 정보·기술 공유로 국민안전이 한층 두터워질 전망이다.

특히 3개 기관은 2019년 5월 강릉 수소폭발사고, 2018년 12년 강릉 펜션 가스보일러 사고 등 가스분야 외 가연성 가스사고와 가스 관련시설 사고 에도 전문인력과 장비를 공유하여 국민의 안전한 미래를 열어가기로 했다.

남중훈 특수재난대응단장은 “가스 사고는 반드시 대형인명피해로 이어지는 만큼 협약을 준수하여 지역주민의 가스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겠다” 고 말했다.